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에 피는 꽃 가운데, 누가 뭐래도 가을의 꽃은 국화라 할 것이다. 산과 들간에 나서면 이른 아침 찬 이슬을 머금고 피어있는 청초한 들국화를 쉽게 만날 수 있어 좋다.

가을의 참된 정취는 성긴 울타리, 찬 비 뒤에 떨고 서 있는 몇 송이 국화나 들녘 언덕가에 홀로 피어있는 외로운 들국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이런 국화의 매력과 생명은 한결 선연하게 드러난다.

울타리에 권 재래종 국화나 산야에 널린 야생의 국화가 아니라도,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져 각각각색의 모양을 자랑하는 원예종 국화 또한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손끝에서 굽혀지고 비틀리고 꺾이여 웃음 짓는 그 속에 무슨 가을 국화의 생명이 깃들일 수 있으랴.

야생의 들국화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속냄새 비슷한 맑은 향기는 원예종 국화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외롭지만 외연하게 피어있는 들국화는 범접하기 어려운 고결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조선조의 선비 삼주(三洲) 이정보(李鼎輔)가 읊은 시조 역시 야생의 들국화를 예찬한 것이다.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너 홀로 피었다

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일찍 심었어도 늦게 피어가는 국화에서 옛사람들은 군자의 덕을 보았고, 서리를 무릅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강직과 절의(節義)를 일깨웠다. 그러기에 많은 꽃 중에서 국화를 일러 4군자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국화를 사랑하는 데도 격이 있다

국화를 노래한 시인으로 미당(未堂) 서정주를 빼놓을 수 없다. 1947년에 발표된 그의 시 ‘국화 옆에서’는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즐겨 외웠던 시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시이기도 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 보다//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 그러나 이 시는 국화가 갖고 있는 미덕에 대해 한 마디의 찬사가 없다. 국화꽃이 피기까지의 인고(忍苦)는 노래하고 있으며, 낙목한천 아래서 오상고절을 지키는 국화의 가장 큰 덕은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

담이 국화의 이러한 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국화의 오상고절을 노래할 수 없었던 것은 친일로 얼룩진 그의 삶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획절한 그의 자격지심이 국화의 높은 절의를 감히 노래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닐까.

국화를 노래한 명구로는 도연명의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 꺾어 들고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도연명의 음주 시 제5수의 5, 6구로 일찍이 소동파(蘇東坡)가 명구라고 찬탄한 이래 천하의 명구가 되었다. 이 명구 하나가 도연명의 고결정정(高潔淸淨)한 삶을 더욱 돋보이게 했

을 수 있다. 백낙천은 도연명의 옛집을 찾아 “이제 그대의 옛집을 찾아 숙연한 마음으로 그대 앞에 섰노라. 그러나 나는 단지에 있는 술이 그리운 것이 아니요, 또 졸음은 그대의 거문고가 그리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가 명에나 이익을 버리고 이 산야에서 그렇게 살다 간 것이 그리웁노라”했고, 황정경(黃庭堅)은 “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의 오묘한 경지를 그려왔을 따름”이라 했다.

어찌든 도연명은 국화를 따로 노래하지 않고도 이 명구 하나로 국화의 주인이 되었다. 주돈이(周敦頤)가 그의 애연설(愛蓮說)에서 “물이나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나무의 꽃 가운데는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 무척 많다. ...진나라의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사랑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국화는 꽃 중의 은자(隱者)이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가 도연명 후에 또 있었다는 것들은 일이 거의 없다. 연꽃을 사랑함을 나와 함께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여 국화의 주인은 단연코 도연명이라고 했다.

도연명의 심원하고 유한(幽閑)한 그 깊은 경지를 내 어찌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만, 가을이 되면 점점 구절이 아련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보면 국화를 사랑하는데도 단계가 있고 격(格)이 있는 것 같다.

귀거래사(歸去來辭)와 함께 도연명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라 할 음주 제5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초막을 짓고 사람들 속에 살아도/ 말과 수레 소리 시끄럽지 않구나/ 물노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속세를 떠나면 저절로 그렇다네/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 꺾어 들고/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산 기운은 황혼에 곱고/ 날던 새들은 짝이 돌아온다/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려니/ 말하고자 하되 말을 잊었다” (기세춘·신영복 역) 우리는 이 시에서 마음이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심원(心遠)의 경지와 무위자연에 귀일한 그의 참뜻(真意) 참됨을 어렵스럽게나마 헤아릴

수 있다. 백낙천은 도연명의 옛집을 찾아 “이제 그대의 옛집을 찾아 숙연한 마음으로 그대 앞에 섰노라. 그러나 나는 단지에 있는 술이 그리운 것이 아니요, 또 졸음은 그대의 거문고가 그리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가 명에나 이익을 버리고 이 산야에서 그렇게 살다 간 것이 그리웁노라”했고, 황정경(黃庭堅)은 “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의 오묘한 경지를 그려왔을 따름”이라 했다.

어찌든 도연명은 국화를 따로 노래하지 않고도 이 명구 하나로 국화의 주인이 되었다. 주돈이(周敦頤)가 그의 애연설(愛蓮說)에서 “물이나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나무의 꽃 가운데는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 무척 많다. ...진나라의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사랑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국화는 꽃 중의 은자(隱者)이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가 도연명 후에 또 있었다는 것들은 일이 거의 없다. 연꽃을 사랑함을 나와 함께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여 국화의 주인은 단연코 도연명이라고 했다.

도연명의 심원하고 유한(幽閑)한 그 깊은 경지를 내 어찌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만, 가을이 되면 점점 구절이 아련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보면 국화를 사랑하는데도 단계가 있고 격(格)이 있는 것 같다.

귀거래사(歸去來辭)와 함께 도연명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라 할 음주 제5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초막을 짓고 사람들 속에 살아도/ 말과 수레 소리 시끄럽지 않구나/ 물노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속세를 떠나면 저절로 그렇다네/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 꺾어 들고/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산 기운은 황혼에 곱고/ 날던 새들은 짝이 돌아온다/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려니/ 말하고자 하되 말을 잊었다” (기세춘·신영복 역) 우리는 이 시에서 마음이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심원(心遠)의 경지와 무위자연에 귀일한 그의 참뜻(真意) 참됨을 어렵스럽게나마 헤아릴

수 있다. 백낙천은 도연명의 옛집을 찾아 “이제 그대의 옛집을 찾아 숙연한 마음으로 그대 앞에 섰노라. 그러나 나는 단지에 있는 술이 그리운 것이 아니요, 또 졸음은 그대의 거문고가 그리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가 명에나 이익을 버리고 이 산야에서 그렇게 살다 간 것이 그리웁노라”했고, 황정경(黃庭堅)은 “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의 오묘한 경지를 그려왔을 따름”이라 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公私도 구분 못하는 의원·단체장 자격 있다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의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에 자질을 의심하는 한심스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 예산 확보에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힘을 합해도 역부족일 판에 정치적 이해가 다르고 해 공조는커녕 서로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안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간의 첨예한 대립은 가관이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정대결을 벌인 바 있는 두 사람은 이를 반영하듯 지역 예산 확보에 전혀 공조하지 않고 제각각이다. 심지어 군 관계자가 “국회의원 측과는 말조차 섞기 싫다”는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순천시와 강진군도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걸끄러운 관계 때문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제가 틀어지는 데 정치자적 이념이나 사적 감정이 개입돼선 안 되는 이유다. 그러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 직(職)을 떠나라.

출몰 잦은 야생동물 ‘공존책’ 마련이 최선

올 겨울 멧돼지와 반달곰 등 야생동물의 민가 습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기후 탓에 먹잇감이 크게 부족해진데다 최근 등산로가 확장되면서 야생동물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중 대표적 야생동물인 멧돼지는 수확철 민가까지 내려와 크고 작은 피해를 안기고 있다. 두달 전 구례군 산동면 중기마을 김모(41)씨 집 토종닭 우리에 멧돼지가 들어와 닭들을 습격하는 바람에 수십 마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멧돼지의 도심 및 도로 출몰이 빈번해 멧돼지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멧돼지의 출몰이 잦아진 것은 상위 포식자가 없어진 데 따른 개체수 증가와 먹잇감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도토리의 결실률이 30%에 그쳐 도토리가 주 먹잇감이 멧돼지의 겨울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달곰습격 역시 부족한 먹이 때문에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지리산 자락 인근 마을에 반달곰 방어용 전기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등산로 개발과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훼손도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다. 서식 환경이 줄어들고, 결국 먹잇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민가나 도심에 출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사라임’의 출몰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충하고, 도심에 야생동물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야생동물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토리나 밤 등의 채취를 엄히 단속해야 하며 시골이나 옥수수 등 먹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이 최선책이다.

無等鼓

검은 베레모와 단정한 유니폼에 당당한 걸음걸이, 캠퍼스에서 종종 마주치는 학군사관(學軍士官) 후보생들의 모습이다.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로 불리는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발해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시켜 군의 초급 장교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1961년에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학과 공부와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문무 겸비’의 ROTC를 통해 이미 슬한 장성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남성만의 무대였다. 미군은 1961년 ROTC 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1973년부터 여성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 우리와는 크게 대조됐다.

이처럼 여성들에게는 문을 굳게 닫고 있던 ROTC가 처음으로 열려 여성 후보생 60명을 선발한다. 여성들에게 직업 군인으로서 ‘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배출한 여성 장교는 모두 5명. 전남대 출신인 양승숙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2002년 1월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이계순, 윤종필, 박순화, 신혜경 장군까지 모두 5명이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나 이들은 모두 간호병과로 국한됐다.

육군이 최근 여성 장교장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360명이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명지대가 10.6대1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10.4대1), 강원대(10.2대1) 순이었다. 최종 합격 자원은 2년간 군사교육을 마치고 오는 2013년 첫 여성 ROTC 장교로 임관해 2년 4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ROTC의 문호 개방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져 야전 지휘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장군’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복무대역엔 별들의 세계에도 이젠 ROTC 과정을 통해 거센 여풍이 예고되는 셈이다.

ROTC의 문호 개방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져 야전 지휘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장군’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복무대역엔 별들의 세계에도 이젠 ROTC 과정을 통해 거센 여풍이 예고되는 셈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NGO 칼럼

이재봉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이 지금처럼 가슴깊이 와닿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수해로 인해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다.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로마저도 차단되고 남과 북 모두가 상황을 반전시킬 적절한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던 국면에서 발생한 수해가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쌀이기 때문이다. 쌀 50만 톤을 남과 북이 협력하면 일차적으로 북한은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고, 남한은 쌀수급이 안정되어 농민들이 그나마 땅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조성될 수 있고, 화해협력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통일부는 통일 쌀 보내기가 한반도 공존번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

통일쌀은 남북관계 복원 시금석

북한 수해지원을 계기로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한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의사를 보였고, 쌀 5000톤을 실은 첫 지원물자가 지난 25일 인천항을 떠났다. 그와 비슷한 시간에 금강산에서는 감격적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줄어들거나 아예 막혀버렸던 통로들이 하나씩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위기상황 타개책 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북한 수해지원의 필요성과 화해협력 정책의 복원을 주장한 것은 통일부가 아닌 ‘통일쌀’ 300여 톤과 밀가루 500여 톤 등을 북한 수해지역에 지원한 시민사회였다. 내외적으로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물린 정부가 그것도 정부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조차 부담감을 느꼈던지, 국제적십자사가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단서를 붙인 채 명분 쌓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해지원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러 지자체의 대북지원 노력을 근거도 불확실한 기준들을 내세워 가로막고 있고, 특히 쌀만큼 고집스럽게 승인을 보류하면서 남북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새간에는 이 정부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철학은 없고, 통일을 반대하는 철학만 넘쳐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일쌀보내기 운동이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우리 지역 남북교류 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고, 모금운동을 통해 통일쌀을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쌀보내기 운동은 북한 수해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민족화해 운동이며, 쌀 대안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운동이다.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모금운동에 광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며, 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업국장)

기고

강왕기



20세기 후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유동이 급속하게 늘면서 많은 대도시가 글로벌(Global)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 주요도시의 지하철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고,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이나 명동에서는 노점 상인들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우리말 간판보다는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은 정도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광주도 이제 도시의 DNA(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열린 도시, 외국인친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창조도시 이론의 창시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생산력의 핵심은 인간이며,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창조성이 요구되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떠오르는 ‘창조계급’의 인재들을 도시에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열린 도시, 외국어 소통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열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이미 마련됐다. 2008년 말 기준 광주 외국인 거주자는 1만2000여 명에 이르며, 올해 ‘중국 만 명 광주활동’행사를 시작으로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2012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14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하계U대회 등 외

국인들이 광주를 체험할 수 있는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매년 개최된다. 특히 2015하계U대회는 전세계대학총학생회, FISU총회 등 다양한 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대회기간 중에만 우리 광주시를 방문할 외국인 2만 여명을 넘을 예정이다. U대회에 참가하는 서구선진국의 운동선수들은 장차 그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 창조계급이 될 인재들이다. 이들이 광주에 호감을 가지고 돌아와 광주를 세계에 알려준다면 전세계의 창조적 인재들을 광주에 유치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광주시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2만 명을 양성하고 있다. 중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U대회 영어스콜을 운영중이며, 지역 내 27개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교실과 방학중 영어캠프를 통해 올해에만 6000여 명이 영어교육을 받게 된다. 영어스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서는 오는 12월 사이버외국어 스콜이 개설된다.

경제기반이 열악하고 산업, 관광 인프라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무한 도시경쟁시대에서 광주가 전세계의 경쟁도시를 앞지랄 수 있는 지름길은 인재육성뿐이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세계를 품자.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광주, 열린 도시로 세계를 품어라

리다 교수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생산력의 핵심은 인간이며,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창조성이 요구되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떠오르는 ‘창조계급’의 인재들을 도시에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열린 도시, 외국어 소통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열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이미 마련됐다. 2008년 말 기준 광주 외국인 거주자는 1만2000여 명에 이르며, 올해 ‘중국 만 명 광주활동’행사를 시작으로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2012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14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하계U대회 등 외

국인들이 광주를 체험할 수 있는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매년 개최된다. 특히 2015하계U대회는 전세계대학총학생회, FISU총회 등 다양한 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대회기간 중에만 우리 광주시를 방문할 외국인 2만 여명을 넘을 예정이다. U대회에 참가하는 서구선진국의 운동선수들은 장차 그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 창조계급이 될 인재들이다. 이들이 광주에 호감을 가지고 돌아와 광주를 세계에 알려준다면 전세계의 창조적 인재들을 광주에 유치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광주시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2만 명을 양성하고 있다. 중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U대회 영어스콜을 운영중이며, 지역 내 27개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교실과 방학중 영어캠프를 통해 올해에만 6000여 명이 영어교육을 받게 된다. 영어스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서는 오는 12월 사이버외국어 스콜이 개설된다.

경제기반이 열악하고 산업, 관광 인프라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무한 도시경쟁시대에서 광주가 전세계의 경쟁도시를 앞지랄 수 있는 지름길은 인재육성뿐이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세계를 품자.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고가 치료비 보험혜택 절실

눈만 뜨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신문과 방송을 매운다.

특히 최근에는 불치병을 치료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우리 주변에는 감당하기 힘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환자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이나 시술의 대부분이 보험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고가인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비싼 치료비 때문

에 생활고에 허덕이다 가족이 동반 자살을 택했다는 비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정의 해체와 사회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진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정이라는 마지못 울타리마저 해체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대한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희귀·난치성 환자가 ‘희망의 끈’을 놓는 가정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건정책이 뒤따라 줘야 할 것이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